東亞日報
夕刊
七月一日(水)

에國皇帝自進出席

伊國側의暴行을摘發

言言句句사람의肺腑를衝擊

聯盟國의無責任非難

緊急聯盟總會大緊張

—議長、伊國記者團의退場까지命令！—

【제네바三十日發電】聯盟總會는 三十日午後三時 [illegible]

國家統制를强化

經濟特權의廢止主張

米루氏演說로財界俄然不安

"選擧戰劈頭의巨彈"

【뉴욕廿九日發電】 [illegible]

(寫眞은米루大統領)

【뉴욕廿八日發電】 [illegible]

伊國、極度로憤慨

酷毒한論難이라하야

"記者團退場은言語道斷"

【로마一日發電】 [illegible]

아族의死傷者

過去數日間六十四名

【예루살렘卅日發電】 [illegible]

英뽈首相 近間挂冠？

【런던卅日發電】 [illegible]

白耳義總罷業 漸次回復

[illegible]

西國反軍首腦 密議中被逮

【마드리드三十日發電】 [illegible]

專賣創業十五週年 記念式을擧行

[illegible]

義務教育年限延長案

閣議에提出키로決定

現在의六年制를八個年制로

文相態度와案의內容

【東京電話】 [illegible]

茂益丸事件의 交涉經過를發表

【青島三十日發電】 [illegible]

各道警察部長 會議遂終了

[illegible]

南京、西南兩派의抗爭 (二)

胡、李、陳三氏는 西南派三巨頭

高永煥

西南派의內容

[illegible]

西南文治派巨頭 胡漢民

西南政務委員會

[illegible]

西南軍事委員會

[illegible]

黨部西南執行部

[illegible]

西南獨立實現？

兩廣首腦對中央策을協議

軍政聯合會議召集

【廣東三十日發電】 [illegible]

廣西軍繼續進軍 豐慶을占領

【廣東一日發電】 [illegible]

白氏前線視察

【廣東一日發電】 [illegible]

橫說竪說

百補丸 平和堂

外科 レントゲン 植村病院 醫學博士 植村俊二

第二劇場 弱者大成功

若草映畫劇場 わが胸は高鳴る 處女花園 薔薇はなぜ紅い

優美館 國際뉴ー스 水煙一萬里 무지개「虹」

百圓으로훌륭한日鮮人向小賣商 和洋雜貨二百點 目下特別景品付大賣出中但七月 丸一商店

조양그물 낙시제구 吉備商會

눈은學問의窓 姿勢는똑바로眼鏡은正確히 大學堂眼鏡店

義務教育延長問題
朝鮮에도大衝動
朝鮮에義務教育實施促進이라고
各方面에서注目中

문부성(文部省)의 의무교육八년제문제(義務教育八年制問題)는 독부의 방면으로는 그 형세가 매우 중요하야 그 진전이 자못 주목되어 잇는바 가령 그 형태가 어떠하던가에 실현되게 되면 조선으로서도 적어도 그 정신을 參酌할 필요가 잇다하야 총독부 학무국은 실천학무회를 강고히 하엿다. 저전국학무부장회의에 협의중인데 야(大野)학무과장은 學務省의 의향을 자세히 청취하야 가지고 귀임할터이므로 그가 귀임하는 것을 기다려 조선서의 태도를 결정키로 된바의 무교육八년제 실시 결과가 중등학교의 학제개혁에까지 미친다 하면 문제는 자못 넓은 범위로 되고 더한거름 나가서는 조선가 중등교육 기관의 제도 개정문제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잇다. 또한 아직 의무교육제도를 실시치 아니한 조선으로서는 일본내지의 八년연장 실현은 조선의 의무교육제도 촉진에 채찍을 더하는것이 되므로 관계 각 방면에는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잇다.

中等教育委員
今月中에會議

초등교육제二차확충계획에 압하 교육의 중등교육기관 확충을 부의(附議)할 중등교육조사위원회(中等教育調査委員會)는 六월안에 제一회로 개최할 예정이던바 지사회의(知事會議)가 예정보다 좀 늦어저서 七월 中순경에야 개최키로 되엇다 이위원회에 상정할안에 대하야는 요전에 학무국에서 입안한 초안(草案)에 다시 지난번에 지사회의에서 자문되엇던

一、中等教育施設을 時局에 適應시킴에 關한方策

에 대한 답신(答申)으로서 각도지사로부터 들어온 의견을 더하야 학무과에서 재검토를 행하고잇는바 七월중순까지에는 성안을 볼터이므로 卄일경 제一회위원회를 열예정이다 그리하야 학무국의 방침으로서는 현재 보통중등학교에 비하야 실업학교(實業學校)가 현저히 부족함을 느끼고잇으므로 우선 제一에 실업학교의 확충을 도모할 의향으로

一、財源問題
一、普通中等學校와 實業學校와의 擴充比率問題

가 위원회의 중심문제가 되엇다 그리고 동위원회에서는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공학문제(共學問題)가 위원속으로부터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나 이문제에 대하야는 학무국에서도 엄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잇으나 여러가지 난점(難點)이 잇으므로 조급히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咸興에師範新設
敷地決定되면年內着工

총독부에서는 초등교육 보급에 따라 소화十一년도에 경성여자사범(京城女子師範), 十一년도에 전주사범(全州師範)을 신설개교 한바 다시 제二차초등교육보급계획 수립에따라 명년도에 개교할 사범학교는 함흥(咸興)에 신설키로 결정, 목하 부지(敷地)를 골르고 잇는중 부지가 결정되면 금년도부터 곧 신영공사에 착수할터이라한다

死刑共黨上告

지난번 청진(淸津)지방에서 무기징역을 받고서 경성복심법원에 불복공소를 하엿다가 사형(死刑)판결을 받은 간도 농협사건(間島農協事件)의 관계자 최성훈(崔成勳)외순(崔俊) 양명은 一일에 또다시 경성고등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엿다.

電車轢人

부내 황금정(黃金町)四정목 一六一번지 평기점의 배달로 잇는 이종남(李鍾南)(二〇)이는 一일 오전 十一경 자전거를 타고 황금정 一정목 一五一번지앞 전차길을 횡단하라 할지음 원정행(元町行)의 전차가 질주하여오다가 미처 정거를 못하야 이종남은 인사불성의 부상을 입고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 입원 응급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 하다는데 가해자인 전차운전수는 이재훈(李載薰)(二〇)이라 한다.

◇…複線되는麻浦電車線…今日麻浦所見

道路豫定線은 九月內發表
淸溪川改修等土木問題로
◇都計委員會開催

경성부에서는 오는 九월안으로 도로예정망(道路豫定網)급 시구획정(市區劃正)계획등의 공포를 보게될것이므로 그에대한 구체적 심의를 하기 위하야 오는 三일오후二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를 개최하기로 되엇다 한다. 동 위원회에서 토의될 의제는

一、장래 경성부의 토목사업(土木事業)방침에 관한건。
二、청계천개수(淸溪川改修)문제에 관한건。

이라는바 제一의제의 내용은 도로예정망의 신설과 시구획정에대한 구역결정(區域決定)과 공사착수년도(工事着手年度)에 대한 토의에 관한것이라 하며 제二의제의 내용은 명년부터 五개년계속사업으로 五百萬원을 드리어 청계천 개수공사를 시작하기로 되어잇는 것은 기보한바어니와 그 개수방법에 대한 구체적토의를 하기위한것이라 한다。

貨物自動車에火災

一일 오전八시五十분경 부내종로三정목 六번지앞에서 양평군청운면 용두리(靑雲面 龍頭里)六四二번지 김윤식(金潤植)소유의 화물자동차에서 불연불이 이러나 일시 혼란상태를 이루엇으나 즉시진화시켯다 한다. 발화원인은 자동차속에 담배불을 떨어트린것이 그대로 커지지 안코 발불이된것이라 한다。

紅燈街에뿌려진돈
한달동안에七十餘萬圓
뭉땅거리는바람에이러케消費
昨年五月보다助興稅二千圓增加

세태(世態)가 악화(惡化)한 인지 혹은 경기(景氣)가 사실상 조하짐인지는 모르되 경성부민의 유흥기상(遊興氣象)만은 해마다 느러가고잇다。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는것은 경성부에서 징수하는 조흥세(助興稅)의 격증인데 부내에 산재한 요리점(料理店)유곽(遊廓)등 영업자 一백九명이 지난五월달에 경성부세무과에 납입한 조흥세는 一만 四백四十七원에 달하야 작년五월의 조흥세액 七천八백十二원五十전에 비하면 실로 二천六백三十四원五十전이 증가하엿다。 그러나 이조흥세란 영업수입의 백분의六을 징수하는것이므로 부민이 五월달에 홍등주가(紅燈酒街)에 내버린돈은 실로 六十여만의 거에에 달하는것으로 볼수잇다는바 이사실만으로라도 부민들의 세기말적(世紀末的)기분에 떨어저잇는것을 넉넉히 짐작할수 잇다 한다。

西郊에強盜

(一일오전二시반경) 서세교정(西細橋町) 一六一 필문가(畢文可)(三一)라는 중국채소상집에 때마침 주인 필문가가 장안으로 채소를 갈러갓던 틈에 三명의 괴한이 식도를 들고 침입하야 필문가의 종제 수속형(隨竹亨)(二七)고용인 장연례(張連禮)(三一)를 모기장을 씨워노코 청청목어노코 돈감순것을 대라하엿으나 밥치안으니 三명이 방안을 뒤저 섯이되저 섬한속옷이 은폐하여둔 현금 二百九원 五十전을 찾어가지고 고비인 수하엿다 이급보를 받은 소관 서대문경찰서에서는 홍지리와 연히면강도사건이 아주도 해결되지못한때라 더욱 신경을 날카롭게하야 동서원을 비상소집총동원하고 경기도경찰부 수사부장 길야(吉野)씨외 二명의 응원까지 받어서 방금 범인을 엄한수사중이라는데 피해자와 가타방면의 수단방법이 이연이면강도와 방법한점이 만하야 동서에서는 이외면강도와 동일범인이라 판단하고 수사중이라하며 연석어 강도사건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못한관계로 서대문서관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흉흉하다한다。

假冒入齒醫

경기도 진위군 고덕면 동청리(振威郡 古德面 東淸里)二二三번지 이우명(李禹明)(二七)은 三十일 오전十一시반경 삼판통(三坂通)이십동 이중룡(李中龍)(二〇)에게 금이(金齒)세개를 해주겟다는 구실로 현금 三원을 받고 이를 해박어 주려는것을 소관 종로서원이 발견하고 체포하야 취조중인데 그는 허가없는 치과로 판명되엇다 한다。

阿片輸送隊襲擊
廿三名殺傷拉去
二萬圓어치 阿片과 驢馬奪去
撫順에突現한反滿軍

【신의주지국전보】 안동현아편전매소(安東縣阿片專賣所)임강분서(臨江分署)정중경공사합작(中井共三郎)과 운송업자 천촌(川村)외 十명은 당나귀 卄〇〇두를 거느리고 치안대六명의 보호하에 二十七일 아침四시 모자산(帽子山)을 출발하야 무송현(撫松縣)을 향하든도중 三十일 아침九시경 대도자(大道子)에서 반만군 수령만순(萬順)과 청산호(靑山好)의 합류부대三百명의 습격을 받엇다。 이급보를 받은 안동영사서 임강분서(臨江分署)에서는 중촌(中村)서장이하 十명의 경찰대가 三十일아침 모자산출장하야 현장에 급행하엿다。 아직 피해상황은 자세히알수없으나 이미 판명된 피해상황은 사자二명 부상자二명 납거자十三명 총기(銃)를 빼앗긴것이 二十정 당나귀 一백二十두 그외 아편을 빼앗긴것이 五千개에 가격은 二萬五千원이라 한다。

先生님들의筆戰이 學生의肉戰으로
今朝明倫町街上의事件
關係者警察에引致

필전(筆戰)이 육전(肉戰)으로 변하야 결국 경찰서로 인치되엇다。

평양전부터 부내 명륜정(明倫町)二정목에 잇는 명륜학원(明倫學院)의 강사 김모(金某)가 《조선문인》 이상에 나타난 송석하(宋錫夏)의 선생환희(?)라는 글을 지상에 발표하자 불교시의 무씨가 반박문을 발표하고 이로써 계속하야 론쟁과 욕설이 전개되어 오든중 一일 오전八시三十분경에는 전기 김모가 전날밤의 숙직을 마치고 집으로 도라가라고 교문을 나섯을지음 마침 미리부터 기다리고 잇든 중앙불전(中央佛專) 三년생 이필만(李弼萬)(二六)이가 두어마디의 시비를 걸고나서 김씨에게 폭행을 하는것을 등교중이든 명륜학원생 유희갑(柳熙甲)(二〇)이가 동료 명과함께 이필만이를 폭력으로 제재하엿다。 이사실이 소관 동대문경찰서에까지 알게되어 동경찰에서는 관계자를 호출하고 조사중이라한다。

寡婦의獨子가 怪藥먹고急死

【부산】 경남동래군기장면동정리(東萊郡機張面東亭里) 정상구(鄭尙九)(二〇)라는 과부의아들이 수년간 간장병으로 신고하고잇든바 지난二十六일 오전六시경에 전북 진안군정천면(鎭安郡程川面)에사는 인삼행상하는 노파 최인순(崔仁順)(六〇)이가 밥얻어먹으러와서 병세를 듣고 자기의소지하이 그병에 명약이라고하고 괴상한약을 멧개주는것을 먹고 동일오전十시경에 드디어 죽엇다고한다。 이소사실을 안 동래서에서는 사체를 해부하는동시에 약소노파를 체포하야 취조중이라고한다。

離婚된男便같이 無効라고提訴
協議한일도없고捺印도안햇소
橫城村婦의苦心腸

강원도 횡성군갑천면에사는 횡성군 갑천면 백(甲川面百)조부임(曺富任)은 그의남편인 정도영(鄭道泳)과 이혼하야 경성지방법원에 제소하엿는데 그소장의 내용을 보면 자녀간 三명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소화十一년六월卄九일부로 협의 이혼이되야 호적상으로 남남이되여 잇는데 원고는 이혼계출에 날인(捺印)한적도없고 면사무소에 동행한일도 없는데 이와같이 이혼이 되여잇는것을 이유로하야 소송을 제기한것이라 한다。 그는 대정十一년十월卄四일에 피고와 결혼하야 소화 二년에 혼인계출을한후 그간무사하 사이에는 하고 조사중이라한다。

東學黨彈壓

【상주】 경북상주군은척면안동촌(雲井面安東村)에 본부를 둔 동학당은 비주성수이(金…)의 설교하에 수천여명의 교도를두고 오랫동안 포교에 종사하여오든바 卄七일오전에 상주경찰서에서 고등계수입 녹정부보(鹿井警部補)의 인솔하에 경관十여명이 동학당본부를 대수색하는동시에 교의에 관한 출판서적을 一一이 봉인하고 기타서류를다 수입수한후 부교수 김약세(金若世)(?)를 검거동행하야 목하 엄중취조중이라는바 근래 사교취체(邪教取締)가 엄중한 이제에 일반은 다대한 주목을하고 잇다한다。

慈城에普天教徒
警察이彈壓令

【자성】 보천교(普天敎)에서 한때는 상투짜고 갓두루 매여 돈을 입고 백주대로상에 남부끄러운줄을 모르고 양주청룡으로 횡행하더니 교주 차경석이 천자를 이루지못하고 세상에 사라지자 그정체가 드러나 당국에서 철저한 단압을 나리기시작하야 전조선적으로 보천교도를 취체하고잇는데 평북자성경찰서에서도 지난 二十一일에 동군 보천교 약소간부 엄승환(嚴承煥)외 二인을 고등계에서 소환하야 이제로부터는 보천교로서 집회 헌금 포교를 하지말라고 명령을 나리엇는데 지

동무발길에채여죽어

【봉천】 너무기뻐하다가 죽엇다는사실 一지난단오절기를 이용하야 봉천체육회주최로 시민운동회를 개최하고 나서 나루유쾌하하게 보내엇는데 그중에 예서하계도 조선인노동조합(?)인 중상(?) 전도순(田道淳)(二〇)은 기쁨에 넘치어 뛰놀다가 그만 동무의 발길에 다치어서 제三일만에 그만 절명되엇다고한다。

人夫二名生埋

【함흥】 三十일 오전十시경 부내 산수정(山手町) 반룡산(盤龍山) 함흥부 주택지(住宅地) 조성공사장에서 윤토작업중이든 인부三명이 一시에 생매된 사고가 발생하엿다。 즉시 부근인부들이 구출작업을 하야 무사히 파여 냇으나 부내 소화정(昭和町)二정목 최덕수(崔德洙)(…)는 두개골이 깨여저 즉사하고 그외의 북부정(北部町) 권의○(…)은 三정목二六 최부봉(崔富奉)(二二)는 중상을 당하야 부내 김명하(金命河)병원에 입원가료중이나 그중一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旱魃의退治策으로
天水畓에灌漑施設
有望四十萬町步를指定하야
一千萬圓으로築洑助長

조그마한 한발에도 하눌만 처다보고 비(雨)를 기다리는 천수답(天水畓)의 수리사업계획은 기보한바와같이 그동안 총독부농림국토지개량과에서 계획중이든바 최근에 그의 구체적안이 완성되엇다 한다。

그의 내용은 아즉 비밀에 부치나 그는 전조선의 천수답 약 卄萬정보중에서 장래유망한 약四十萬정보를 선정하야 十개년계획으로 수리、방수제(防水堤)등의 토지개량사업을 계속케할터이라 한다。

그의 총예산은 약一千萬원으로서 소규모의 사업에는 一단보평균二十五원정도로 대규모의 사업에는 一단보 최고六十원까지 그의 조성금(助成金)으로써 국고보조를 할터이라는것이다。

그리고 그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의설계계획등은 당국에서 대부분 시행할터이라는데 그의 시설로서는 주로 소규모의 보(洑)또는 우물과 제방(堤防)등이라 한다。

그는 재작년사이 중시계획사업의 중지를 선언한이후로는 조선의토지개량사업은 거의 중지상태에잇어서 하등의 수리시설이없는 다수한 천수답은 해만한 한재에도 적지가되어버리고 마는상태이다。

이에따라 그를경작하는 한발지대의 농민들은 늘 위험을 느끼게되고잇는것이다。 그리하야 그의 화책은 그들의 불안한생활을 안정케 하는것으로 그의실행의 촉진은 사회정책상으로보아도 긴급하다는것이다。

細民戶稅代納

【부여】 충남부여군 규암면 초왕리(草旺里)… 부여군 박부래(朴復來)씨는 금번에 동면내빈궁민 一百卄여호의 수백여원의 호세를 대납하여다 한다。

強盜團突現
首犯은逃走、三名被逮

멀리 현해탄(玄海灘)을 건너서 조선으로 강도행각의 길을 떠난 한 고향의 내명의 동무가 경성부내에서 실업강도를 하고 검찬에 체포되엇다。

광도현 안예군 상포(廣島縣 安藝郡 上浦)에 거주하는 천가희차(川…)외 대곡의명(大谷義明)(二一) 암본박방(岩本博芳)(二二) 산상태랑(小國太郎)(二〇)등 四명은 二十일오후 九시경 부내 서사헌정(西四軒町)二〇二번지 청목의웅(靑木義雄)의 전당포에 침입하야 때로 주인의 목을졸르고 해군도(海軍刀)로 협박을 한다음 순사고를 가지고 도망하라다가 집안사람들의 소리치는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라낫다。 이급보에 접한 소관 본정서에서는 비상소집으로 범인체포에 활동을 개시한지 얼마아니 되어 三명은 체포하엿고 그중의 수범인 산상이는 아직 체포치 못하야 가지 모 수배중이다。

咸南山地에降霜
丰丰穀苗에大慘害
長津은氣溫이零下四度로急降
三年冷地에又復悲報

怪!五月飛霜!

오늘이 七월一일 하지(夏至)가지난지 오래고 三복이 불원한 이때에 서리가 나렷다면 이야말로 큰일이라고 아니할수없다。 음력으로 말하면 五월十三일이니 이야말로 옛말그대로 五월비상(五月飛霜)이다。

함남 갑산군 보혜면(甲山郡 普惠面)一대에는 재작二十九일밤부터 기온이 급작히 내려 三十일 아침六시경에는 영하 一도로되며 서리가 나리엇고 장진군내면(長津郡 郡內面)북쪽에는 작三十일 밤에서리가 내리엇는데 오늘아침에는 기온이 영하四도로 내리엇다。

이지방은 놉혼산에는 아직 잔설(殘雪)이 깔리어잇는 곳으로서 산야에심어논 곡식이 이제겨우 새싹이 연분야 올는판인데 이같이 매정한 서리가 빠리어 그피해는 참으로 말할수없고 더구나 이지방은 상연三년 냉해(冷害)로 만흔 흉작을 당하고잇는만큼 一반농민은 매우 근심하고잇는 중이라한다。

醉客轢傷

六일오후三시五十분경 「도수비아차」 十오열차가 고양군중산면광리(中山面廣里)부근 철교에 이른것을때 대취하야 철로우로 비틀거리고가는 자를발견하고 아무리 기적을울렷으나 비켜나지 아니하야 마침내 바로다리에 중상을 입히고 열차는 그대로 진주하엿다는데 부상자는 연천군(漣川郡)내에사는 정천동(鄭千同)(二〇)이라는 로동자로 방금 도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라한다。

八十萬圓으로
下水溝大改修
第四期工事로府에서決定
明年부터五年計劃

경성부 토목과(土木課)에서는 제三기 하수구개수공사(下水溝改修工事)는 소화八년도부터 동十一년도가 금년으로써 끝나므로 계속하야 제四기하수구 개수계획을 수립하야 명년도부터 오는十六년도까지 五개년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착수하기로 되엇다 한다。 그공사비는 약八十만원으로 명년도예산부터 계상할방침 이라는데 그중 四十만원은 국고보조를 요구하고 나머지四十만원은 기채(起債)할터이라 한다。

十一名出監
麗水事件被告

【광주】 검거된지四년동안에 세상의 이목을 끌든 여수적색노동조합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사건의 정종조제하고서는 리상수등十一명은 작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三년 구형에 대하야 최고 징역 二년이하의 언도를 받고 판결되엇는데 이번에 광주형무소에서 형기가 만료되야 지난三十일에는 정종조一명을 제하고 十명이 출감하엿는데 출감자들은 여관에 모여 반가운 웃음을 웃고잇다 한다。 이에따라 그들은 곧 각기 고향으로 도라갈터이라 한다。

出監者氏名 ▲金龍煥▲朴平永▲李中(…)▲金仁植▲朱元(…)▲文(…)▲金石新▲李昌熙以上十一名

厄月의七月
□氣□象□曆□

多雨로水亂없으면 暴君의颱風襲來
어떠해는가毒이甚하지도잇다
今年이달은無事하엿스면…

七월은 흔히 물난리로 고통을 받는달인동시에 어떠해에는 너무 가물어서 만사람의 가슴을 태우는 달이다。 금년이달에는 얼마나한 비가나리며 얼마의 가뭄이나 닥쳐오지아니할가? 과거몇해동안의 기록을 뒤저보면 우량의다소는 짐작할수는 잇는것이어니와 또한이달에는 심술궂은태풍(颱風)도 우리땅을 찾어온다。

○…○

이달 조선안에잇어 강우량을 조사하여보면 가장비가만흔지역은 중부내륙(中部內陸)과 서조선의 북부내륙인데 이것이 모두 四百미리이상에 달하엿고 이두지역의 우량은 평균 년총우량의 약 三할에 해당하고 기외 다른지역에서는 대체 二할가량에 상당하다。 그리고 六、七、八 서달의 여름우량에 대해서도 그우량의 반분이 겨우 이한달에 나리는 세음이다。 자세한것은 별표(別表)연차우량기(年次雨量記)에 잇거니와 이달은 만흔비가나리어 홍수소동을 하는해도잇는 반면에 우량이 평년바의 반에도 부족하다。 十년으로 십한해는 七월한달를 픽바가물어 비한방울 보지못한적도잇다。

地名	七月平年雨量	最多	年次	最小	年次
木浦	二二〇粍	五三四	昭九	二九	昭七
釜山	三〇六	六九三	大十四	二八	昭七
全州	二三五	七七〇	大九	六一	昭四
大邱	一三一	六〇一	昭九	四二	大四
仁川	二七六	七二八	大十四	四九	明三九
京城	三六二	八四八	昭元	五八	明四〇
江陵	二四六	六八四	大十四	七九	大六
平壤	二五七	五二五	大十二	七七	大八
元山	二八四	五二一	明三八	一一	大八
新義州	二三三	五四七	昭二	一八	大十四
城津	一四	二五七	大十一	一〇	大八
中江鎭	二八二	三五五	大三	三八	大十四
雄基	一一七	三八〇	大十一	二三	大八

남양(南洋)방면에 발생하는 열대성저기압(熱帶性低氣壓)은 흔히 태풍(颱風)이라 구하야 저기압중에 가장심한 피해를 주는 바람인데、이것도 우리조선에는 흔히 이달에 엄습하여 온다。 최근三十년간 통계에 나타난것으로보면 이七월에만 十五회를 달려간것이 기록되어잇어 평균 二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태풍이란 무서운것을 겪어온것이다。

○…○

금년은 과연 이달은 어떠케나 무사히 지낼가? 행여 비가 억수로 쏟아저서 물난리나 내지말엇으면 너무가물어서 속을 태우지 말엇으면 심술궂고 무서운 태풍이나 들리지 말엇으면……?

各地天氣
(今日午前六時現在)

中江鎭 曇 新義州 曇 平壤 曇
仁川 曇 京城 曇 全州 小雨
木浦 小雨 釜山 小雨 雄基 晴
城津 晴 元山 雲 江陵 曇
大邱 曇 釜山 雨 下關 小雨
大阪 曇 東京 曇 天津 雨
青島 晴 上海 小雨 新京 晴
奉天 曇 營口 曇 大連 曇

天氣予報

低氣壓은 揚子江下流와 滿洲及北海道에잇고 高氣壓은 小笠原附近의 海上에서 日本本州에 퍼저잇다 滿洲는 흐리고 處處에 비가잇고 朝鮮은 南部만 비가오고 其他는 흐리다 日本內地九州는 비가오고 其他는 흐릴것갈고 東北地方은 개여잇다

明日은 흐리고 때로 비가온다

(京城) 最高 二八度一

열세동무

盧良根 作
鄭玄雄 畫

〃作者의 말〃

해마다 봄이면 각학교에서 솟아져나오든 수많은 졸업생들속에 더욱이 농촌에서 보통학교나 마치고 상급학교에도 갈수없는 소년들이 좀더 높이 갈망하는것을 나는 늘 보게됩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늘 마음으로 울엇습니다. 벌서 그럭저럭 울기도하고 한숨도 많이 쉬엇겟지오! 그러나 여기에 울지 못한 나는 ... 소년, 소녀들이 있음을 ... 그들의 얘기를 적어 수많은 소년 소녀들을 ... 이 「열세동무」의 ...

一, 졸업

바라보면 머—ㄹ리보이는 푸른 산봉우리 ... 도 어느새 다복이 없어지고 아지랑이만 아물아물 떠도는 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구, 죽은듯 앙상한 나무 가지에 물이오르는 봄—

작년에 갓든 그들이 때가되니까 어김없이 이때의 구석구석에 또다시 찾아왓습니다.

입학생 (一年生)이 모도다 조타고 웃음치는 봄이오니까 도회와 농촌의 크고 작은 각학교에서는 내가 나하는 것처럼 서로다투어 졸업식들을 거행하엿습니다.

삼월 스무날—

이날은 「정원보통학교」에서도 졸업식을 거행하는 날이엇습니다.

만국기가 꽃처럼 줄줄이 걸린 넓은 강당안에는 오백여명이 생도들과 여러 부형들이며 손님들과 선생님들까지 ... 앉은후에 시간이 되자 어느덧 순서를 ... 하기 시작하엿습니다.

제일먼저 학생일동이 일어나 「교가」를 부르는데 이번에 졸업맡을 ... 학생들은 제각기 어디지모르게 서운한빛이 가득히 떠도는 얼굴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가까스로 교가를 불럿습니다.

사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육년동안을 하로같이 드나들며 정들인 학교—더욱이 애써 가르처주시며 사랑하시든 여러선생님과 또한 한교실 한자리에서 머리를 나란이하고 공부하든 동무들이 이날로 마즈막 헤질것을 생각하니 그들은 섭섭한생각이 먼저 앞을 가리워 마즈막 불러보는 교가를 이같이 그리 힘차게 부르지도 못하엿습니다.

그리고 또몇가지순서가 지나간후에 교장선생님의 「훈사」가 잇엇는데 천천히 그러나 힘잇는 말슴으로 「제군이 오늘과같은 기쁜자리에 이르기는 첫재 제군이 육년동안이나 무사히 참고 견디며 하엿음을 ... 둘재로는 제군의 부모님들께서 제군들이에서 땀을흘려 애써 신공이잇다면 여러분선생님들의 사랑과정성이 제군을 북돋아준것인줄 생각한다.

오늘 이자리에서 제군에게 마즈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것은 앞길을 제가끔 제손으로 닦으며 나갈 굳은결심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여름철에 흔이잇는 유아들의 돌림병

못먹게만 하는 것이 능사가아니오 어머니가 깨끗하게 맨들어먹일것

醫學博士 金重華

여름이 왓습니다. 장마가다 ... 여러 (疫痢) 이질 (赤痢) 같은 유행병이 만히다니는 기절입니다. 특히아이들의 건강상태를 보아 걸리기쉬운 체질인지 아닌지에 관계가 잇습니다. 색갈이 히고 살찌어보이는 아이와 피부가 약한 소위허약질 (虛弱質)로 보이는 유행병이구나 여리 (疫痢)에 걸리기 쉬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무엇보다도 음식물에 그것이 첫인되여 더위먹는 일, 피로, 폐렴나는데 관계합니다.

◇

유산 (流産)이나 해수욕갓을때에 여전히 감한자극과 피로로 인하야 온몸이 만흐니 특히 조심할것입니다. 大體로 가늘까지 가 제일만흔시기 입니다.

부모님들은 충분한주의를하야 갑자기아니하도록 하시는것은 물론 어머니와 불량한걸리면 맨처음서 치를 잘하여야 그결과가 양호합니다. 또한평상시에도 유의하야 주실필요가 잇습니다.

◇

통발적으로오는 여리는 봄의 원인을 하나도없어지고 열이 상백하야집니다. 설사를하며 신열이 三八, 九도내지 四〇도나 됩니다. 아리하때에는 원인 「그리세린」 三〇그람에 붕산의 물로 완장 (浣腸)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이나오니 그것을 잘보고 대변의 「리지네」 油三〇—三〇그람을 먹입니다. 변을 아니보고 설사하는 때이는일은 위험이 봉박하는것이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만약 가나 과 차빗같은것을 토하게되면 중증이니 외사에게 의뢰하야 수분의 수사와 강심제의 주의를 하는것이 어른이를 사족그효과가 조흔 것입니다.

◇

날이 더워지면 소화기능이 부족해지고 식욕이 감퇴됩니다. 유아의 여러가지는 일반소화기계 전염병인고로 음식물을 주의하여야 이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던지 먹고지하는아이들을 이렇게 ... 것이 병의예방은 아니니다. 비교적건강한아이는 상당히 여러가지를 배어는것이 도로혀 조흐며 그것으로 아하게하는 음식을 주세게서 할려운 제세도 할수가잇습니다.

수외 만한아이가지고 파식이아하도록 부패하지아니한것을 갈리게 수록하야 살뻬이는것이 가장 조흔길입니다. 신선한것을 수록한것으로나 또는 어머니의 손으로 손수 맨든가정요리를 손시 먹인다면 병과의 때문이라 하엿습니다.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잇으나 「구연산가루」를 물에 너허 수성이면 十〇 (%) 대비 가 제일좋고 「수박가루」 하도 좋은 가장좋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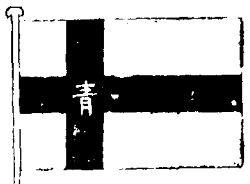
◇

끝 구외대나무 옛날백말린것은 깨끗한 행주에 가루기를 차근한것같이 너어서 부근해로 비벼서 흔들면 맨새가 나니까 이상의 분량으로해 가지고 야채를 한참담거 두엇다가 맑은물에 헹궈 먹는 것입니다.

各國旗이야기 ⑥

湖水와森林의나라 핀랜드

李 傑



「핀랜드」는 본래 로서아에 합병이엇습니다만 一九一八년에 로서아가 쏘베트연방이 되자 「핀랜드」를 독립으로 새얼굴을 만들엇습니다. 나라의 맨들어 보다. 「핀랜드」라고 나라일홈을 짓게 된 까닭은 「핀지탐만」이 살고잇기때문입니다. 「핀」 사람이 보다한 서 야 [?] 三만一천평방리 면적이 「핀」 사람 이라고 일홈하엿습니다.

지도를 펴놓고보면 「핀랜드」는 북으로 북극(北極洋)에 통하고 남에는 백스사만(灣)을 안고잇는 호수 (湖水)를 만히가지고 잇습니다. 곳곳이 이상스럽게 생긴 호수가 가득하게 잇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나라를 호수의 나라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나라의 七할은 호수는 옛석의 빙하 水河의 남은 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핀랜드는 북극해(北極海)를 북쪽으로치운 북극해에 동지고 그곳이 호수가 잇으니가 어느때이나 눈덤이에 싸인 나라인줄 알드래도 ...

핀란드는 보이어서 「핀랜드」의 호수들의 한빛은 파란빛과 이 빛이 합니다. 이와같은 파란빛은 「핀랜드」의 호수를 의미하엿습니다. 한빛은 눈물방울것이며 깨끗하고 정직한 백성들의 마음을 가르키이오 파란 빛은 희망 (希望) 과 활동 (活動) 을 말합니다.

[?]

그러나 그 ... 여름은 ... 호수와 오—로라(北極光)에 빛나는 오—로라를 바라봅니다. 여름에는 하늘에 빽이게 휘황스러히 빛나는 오—로라를 바라보며 수업는 별같이 북쪽나라에서만 볼수 없는 가장 이상한 그리고 가장아름다운 구경거리일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구북쪽 맨끝에 빛나는 오—로라 (北極光) 에 한껏 이곳이라니다. 여름만되면호수가에 잇는 파란것은 북쪽나라의 고요한 경치입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호수나 섬이나 목장이나 산이나 모다가 새하얀눈속에 잠자는듯한 편도 다정스러운나라입니다.

納凉風物帖 ㊀

★쇼•윈도우★

文 雲谷•畫 玄雄

도회지에잇어서 철기의 사자는거리의 「쇼•윈도우」로부터 등장하다.

五월이지나 六월에들어서면 벌서 성미급한 「쇼•윈도우」는 여름화장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추파를던진다.

모사가게의 「쇼•윈도우」에서는 중절모자 대신에 새파라케한 「스트로•햇」이 뜨거운 사나희의머리를 부르고, 구두가게에서는 보기만해도 발이가벼워질것같은 한구두가 선은구두를신고 발에 솜바소리가나도록 땀을 빼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양복점의 「쇼•윈도」에는 흰아우 다 양복을비롯 사 하야 쓸빛등의 여름양복들이쭉 나라니서서 무거운겨울양복이나 봄양복을입고 六월에 부양하에 기진맥진한 사라리맨들을 비웃고데파—트의 「쇼—윈도우」 에는벌서 바다빛의 모던형 해수욕복이 인사를한다.

그러고 여자들의 넘어갈듯싶은도록 가벼워보이는 여름의상들에, 五색찬란한 파라솔 등등……오—우심한 여름이여, 그들를 중치하라!

이러케 가상품나라에서는 봄이내가의 송퇴가을 당하고 여름이청하여다.

고생모든 나가이 「쇼•윈도우」에 나서게된다.

이런 여름이 다치오면 로잇는도회지의 서방님과 아씨들은 해수욕장이니 해상의 이니 온천이니수터이니하며 소이피서라는 신호여행때에 지지안든 단골한 꿈꿉가 이안고 시골로! 시골로! 꼬리를 이여서 떠나간다.

그러하야 도회지에서는 거리를 장식하든 그들 유한계급의 화려한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야말로찌는듯이 내려쪼이는 포장에 시달리면서도 그날그날의 먹을것을위하야하는수없이 하로종일 허덕이는노동자들로부터 소상인, 하급사라리맨에 이르는 순전한 대중층만이 남아서게된다.

그들은 잔등에 땀이 흐르고 그우에 가 노라케된 양복 저고리를 입고 한손에는 부채, 다른한손에는 한커치—프를 들고 마치 장례식에 따라가는 사람 모양으로 무거운 거리가다가 「쇼•윈도우」에 펼쳐잇는 해수욕장을보고 겨우 한다우에 잇는것이 생가키우는 서늘한해수욕장을상상하며 벙수장관에 세운 어름기둥을 보고 겨우 시원한것같은기분을 즐기는것이 그들의 유一한 납량이라고 할것이다.

笑話

코기리의공지

코기리잡부는 福翁 「아이고 속다 하…내가 미라면 그 말에게 가 공지가 맙려서!」

조선의어롱과북극의어름

어름에손을대면 「아이고차워」 의어름이 이러케도 北極의어름은얼마나찰가!」

사진은 끌님아지못하는 호수와 삼림 속은 무인들이 모기를 피우고 정답짜는광경

교육상적지안흔문제

어린애의싸움 (下)

상벌을공평하게하는법

아동에따라다른벌

어린에게 벌을 줄때 어른의 태도에 가장 평요한것은 어린이에 따라벌이 달라야한 다는것입니다. 한머니의 자식이라고 해서성격이 다같은것이아니니까 형이밧을 벌의 방식대로 아우도 밧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간은 형제들 두고 꾸지저 벌을 주라고 하여 형되는 아이는 벌서잇이 나서 벌벌하면서 「어머니 이제안그럿데니 용서하서요 네 어머니 이번만 용서해주서요」하면서싹싹비비는 형이잇는데 그와반대로동생되는 아이는 흔만 껌벅껌벅하면서 내가무엇을 잘못햇연기에어머니가 저러시나하는 태도로 섯도안내고 꾸지람도 아니한다면 이 두아이에게 벌주는 법이같아서는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만일 아우 형에게도 이와같은 벌을 준다면 잇어서 조처못할것 이니까요.

보통때도 겁만은아이에게 하는 법과 겁없는아이에게하는벌은 분리로 달러야 할것입니다.

이와에서도 벌을 줄때 엄명이 면전에서 다만이 벌을 줄곳이 잇다든지 손을 처벌고 한시간서 잇는 복잡이 세운다면 염명중에 는순경고 한시간을 참을수잇는 아이도 잇고 참지못해야 건강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잇을 것입니다.

만입 법주는 법을 가장 이상적으로 한가지만 연구하야 어떠 아이에게 던지 이용할수가잇다면이 얼마 간단하던 것도 없을것이니다.

그러나 가자도생인 개성과 복잡한 아동의 훈련에 대한 상벌은 그리 간단한것은 아닙니다.

드를게벌할것

이러날게 벌한다는데 대하야는 게 생가할 문제이 어머니의 꾸지람이 너머지지면 꾸지람으로만 지안코 잔소리쯤으로 한편으로는 듣어 한편으로는 잇어버리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것이니 벌도그 파카뿐입니다.

어린아이입에 아버지는 꾸지람을 잘아니 해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어머니는 때리면서 꾸지저도 심을 아니내는것은 아버지는 여간해서 꾸짓는 일이없는까닭이오 어머니는 아츰부터 저녁까지 만나기만하면 조곰만해도 꾸짓기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벌을 주는데 대하야도 어린애가 벌을 위험 어딘드적 생각하고 아니하였다가 그때도 두렵게 어린이가 법을 반이 위험하게 아는 그대로 ... 주는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대통령 후보자로 피선된 랜던씨의 가족과 부인세자녀

무짓기때문이니까 상습이 되어 그런것입니다 벌이라는것은 비상시를 위기일발할때 이용해야할것이오 만일 벌주기를 반벌하다면 효력이 없어지나니 벌을 만히받는 아이는 벌받는것이 당연하게 아는 아이가잇습니다

어떤 아이는제집에인테 어머니가 벌을 줄때마다 한집에다가 가두는 일이잇엇더니 그다음 부터는 어머니가 꾸지 지며너무한집 속에 들어가고싶으냐 이람을 보 도아니하고 생클생클 우스면서 제가 한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것을 본 어머니는 가마하서네가 들어갓으니 나오면 큰일납니다」하고 버려 두엇더니 한참이 젓다가 엄마는 저 어머을 펴고 잠을 자도록 합니다 어머니 장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성편할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야 벌을 하서야 합니다

라듸오

JODK

七月一日(水)

▼六時三十分 童話 中央保育講習會
▼七時 課外講座(一) 「民謠의生命」 金東河
▼八時 中繼 「漢江流로부터中繼」
▼八時二十分 唱劇 吳太石
▼九時 春香傳 丹牧竹伴奏
▼九時三十分 管絃樂(레코—드) 指揮 스토코우스키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獨唱と齊唱▲六時二十五分 基礎英語講座(二十四)▲七時三十分 演藝(朝鮮の樂花栽培と花楓質)▲八時中繼大會 京城府石橋明江(河畔)より中繼▲八時五十分(東)映畫劇大會戰▲八時二十分(東)曲藝大會

七月二日(木)

▼午前六時 라듸오體操
▼午後零時五分 伽倻琴併唱 歌手 趙 牟 洪 伽倻琴 元 壽 月
▼三時十五分 婦人時間「어린이와외로운 精神教育」 金 興 壽
▼六時三十分 童話「조나란」 韓 相 晨
▼七時 課外講座(一) 야기「齒科科學」 張 起 呂
▼八時 講演 「滿洲國과朝鮮人(二)」 鮮 于 全
▼八時三十分 바이올린獨奏
▼九時 關山戎馬外、關山戎馬 二、孔明歌三、가, 나리四、鷄와 趙 崔 金 金 秋 點 月 紅
▼九時三十分 雜歌 一、春眠曲 二、乾坤歌 大笒 金 金 永 鳳 根 山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十分(東)基礎佛蘭西語講座(三十五)▲七時一分 修養講座▲十時三十分(東)家庭講座▲午後零時 家庭講座(夏の飲料)▲二時(東)基礎英語講座 五分(東)家庭講座▲六時(東)子供の山の話▲六時二十五分(東)心田開發講話▲七時三十分(東)講演▲八時(大)ハモンドオルガン獨奏▲八時二十分(東)琵琶(合奏)▲八時五十分(東)小唄▲九時十分(大)浪曲漫談(上)

七月三日(金)

▼午前六時 라듸오體操
▼午後零時五分 映畫이야기 「안나、카레니아」 徐 相 弼
▼三時十五分 婦人時間 「洗濯과染色」 高 韓 辰 範
▼四時十五分 野球試合實況 京城그라운드에서—「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
▼六時卅分 少女劇 「끝없이가는배」 一幕二場—韓泰源作— 어린이드라마會 指揮 劉 道 順
▼七時 家庭講座(三) 「다듬질」 伴奏 어린이드라마伴奏團

밤이깊을가」 中央保育 沈 恩 淑
▼八時 獨唱 一、 「滿洲國과朝鮮人」 二、……(六)
▼八時卅分 唱劇 下、十二、唱劇 朴 綠 珠 宋 萬 甲 丁 元 慎
▼九時 長鼓 中不出 一 申 高 鼓手 韓 聖 俊
▼九時三十分 ……

白蓮流轉記 (107)

尹白南 作
李青田 畫

十一、풍파 (風波) 五

강이 부름한 자리에는 경위도 없엇다.

커다란주먹 입에에는 법(法)도 한장의 휴지이엇다.

더구나 중군이란 관직을 이용하야 곡직을 不顧한 횡포에는 제하수가 아니를 어이할 길이 없엇을것이엇다.

제하수는 난생 처음 느끼는 격분을 느끼엇지마는 항거할 용기가 나보다 항거하면 할수록 불리할것을 깨닷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중군일행은 패를 육지에 대고 포박한 제하수를 영거하고 상륙하엿다.

육지에서 구경하고잇던 대중은 이중군부하의 무리한행동과 횡포를 눈으로 보앗거마는 제하수가 보신하기에 남이 ... 은 나가지 ... 하는사람도 없엇다.

만일어느 누구가 하나이라도 와 잘못하면 부지하시 엄어지에 ... 게 미움을 받을것이 무서웟스 금춘들 ... 주는것이엇다.

그중에는

「가엾은 일이로군」하고 혀를차는 사람이 없지 안엇지마는 그것은 누가 드를까 그러한 형세에 걸린 제하수를 동정하는말로 집안에 잇어 측은한생각되는말로는 하지안은 정도이엇다.

일행이 저만즘 지나간연후에야 대중은 서우 입을버리는것이엇다.

「여보게 요새는 돈이 잇다구 할 부부 놀지못하게 되어버렷서」

「단 혼이나 드라도 한번 그러게 노라보기나 햇으면면이 없겟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패련이가 제인 팔자이니 인제부터 한솟 호강 두 해보게 되엇는것을 참 아깝진」

「그야 패련이 만이 팔자인가 중은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가 팔자좋게 되엇지」

「글 그래 그런데 패련의 집이 지날 대봉은안에 잇는가」

「아마 그러치」

「그러면 여기서 버짓해주엇나」

「누가 기별을 얼 해주엇나」

「모두가 정신이 없어서 남의 는대 해가에 그런생각이 나다 든가」

「자네 라두 진을 알거든 알엇다」

그는 곧마치 면해서 반 미칠사람이 되어잇엇다.

중군영 군로들은 一대의 사로 바로 무엇이라고 말들을햇는지

「아니 이게 웬소리요 제 자상이 우리주인 제하수를 죽이다니 이게웬소리요」

하고 가로막은 군로들을 떠다밀고 제하수옆으로 달려드는것이엇다.

제하수는 기가 막히는듯이 연 하여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때 돌연 공중에서 「아하는소리 무엇이 바람을 치고 날으는」 구경을하더니 어디서 떠들어오는지 가 달려들더니 하나가 날러들어 와서 마상 에올라 이중군의 어개에 드러마젓다.

이중군의 몸은 앞으로 곤두라진

려 중얼이젓다.

「내남색없이 그런생각이 나나」

「그러나 저러나 인제 평양두다 망햇네」

「헤」

「빽수에 기생이 무고히 횡액을 당해서 부끝에 ... 저주게 되엇는데 감안이 ... 잇다— 천벌으면 볼짝매나 불어갓을걸 ...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무 다 죽엇네

「흥 군한소리말게 자네부터 왜 그럼 가만히 잇엇드란말인가 ... 숨어 대없는 소리만 ... 저 하여 모를 지하는사람입이래야 시비라도 거는체지 걸핏하면 군문에 목 버혀서는 길 너나할것없이 목숨이 ... 사람이 잇다던 가」

「그것두 그래」

女性界特輯 七月號

滿天下讀者를熱狂케할盛裝으로 今日出來!

新家庭

堂堂女性雜誌界女王! 빛나는今月號 꼭 읽으시라!

誌代二十錢(送料二錢)

每月大好評中에賣切되와미처못사시는분이만사오니注文은速히하십시오!

京城光化門通

發行所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

ClibPDF - www.fastio.com

上半期各銀行業績 一般的으로良好

◇計數增大로金利低下카버ー

市內 各銀行의 上半期業績은 … 을 보게되었다

▲朝銀 (四分配當)

▲殖銀 (九分配當)

▲商銀 (年三分配當)

▲漢銀 (年三分配當)

▲東一 (年三分配當)

▲海銀

朝鮮各水産業도 大資本의 完全制覇

劃期的水産革命過程이나 漁業者에는大打擊

一、漁業의大資本化

二、水産加工業의勃興

三、組合制度의資本化

煙草材料手藝品 懸賞募集入賞發表

眞珠貝採集의 和蘭會社設立

私鐵買收의 年次計劃立案

今年米移出 千萬石肉迫?

端境期에도大量移出

六月中輸移出

	六月中	十一月以降計
▲米		
輸出		
移出		
合計		
▲籾		
輸入		
移入		
合計		

大阪穀物組合의 朝鮮白米不買에抗議

穀聯에서反省要求

昨年中鑛産額 八千八百萬圓

그中金産이五千萬圓

總督府調査＝昭和十年中의 鑛産總額은 八千八百二萬九千 … 圓에 達하고 …

馬産經濟實態調査

昭和十年鑛産額 前年比較

鑛種名	單位	昭和十年 數量	昭和十年 價額	昭和九年 數量	昭和九年 價額	比較增減 數量	比較增減 價額
金							
銀							
銅							
鉛							
亞鉛							
鐵							

硫化鐵鑛, 水鉛鑛, 黑鉛, 無煙炭, 有煙炭, 硅砂, 高嶺土, 明礬石, 螢石, 合計

時勢와市況

株式 底保裡不動

前場膠着

朝取短期前場步調

後場底保

出動躊躇 買手가傍觀

朝取短期後場步調

強氣態度는 總買人氣化待

實物賣買價前場

東京國債市場

大阪國債市場

期米 畢竟下趨 發會

前場無勢

財界彙信

各地春繭時勢

農村局發表

月日	販賣所	最高	最低	賣價	數量
六、一九	忠南 瑞山				
六、二〇	江原				
六、二二	全北				

今日의市況

七月一日

株式 (單位十圓)

期米 (單位十錢)

正租

正米 (三等單位)

商品 (單位十錢)

財◇海◇餘◇波

이대로夏枯?

後場不動

新甫下趨誕生

米豆餘墨

中限一層無勢

지바賣關係로

正米商狀 不勢

京城低含

仁川小甘

群山不勢

大邱不變

釜山閑散

木浦反落

內外金銀時勢

(七月一日)

海外金銀

東京金銀

京城金銀

各限俵合

(株式) 京城黃金町 (期米) 仁川本町 玉 柳來恒取引店

(米) 光皿 金益證券 商店

海外經濟

大連特產

金融

商品

京城手形交換

大阪砂糖

大阪錦花

各地人造絹

大阪生絲

朝鮮綿糸布

大阪油粕

滿洲大豆

期米

朝取期米先限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物前場

大阪短期

大阪長期

各地期米先限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

地方正米

日本內地正米

大阪市中在米

各地正米時勢

一日